



세계시민 모여라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국제연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시민 모여라





01



나도
세계시민일까? 07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03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21

박서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4



아하!
평화와 공존의 비밀 33

문아영 (피스모모)

02



내 안에 내가
여러 명이 있다고? 15

박서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5



샴푸를 쓸수록
숲이 사라진다고? 43

공유희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06



윤리적 소비로
나도 세계시민! 53

김원섭, 김성훈 (아름다운가게)

발간사 04

워크북 활용법 06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

세계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국제무대를 누비며 활약하는 사람이나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시민은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핵심 자질은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주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일부부터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계시민입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은 우리 모두가 “나는 세계시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워크북을 기획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무엇보다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데에서 비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북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 공감, 행동의 세 가지 단계를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흥미로운 활동 구성을 통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이름표를 달고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노력은 특히 시민사회에서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른 이름표를 달고 있어 그 경험과 노하우가 한데 축적되어 공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태교육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피스모모,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워크북이라는 공동작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태교육원이 상호의존성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체성 이슈와 다양성 존중에 대해, 피스모모는 평화에 대해, 세계시민교육 보니따는 환경에 대해, 아름다운가게는 윤리적 소비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워크북 집필에 참여해준 저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워크북의 내용을 꼼꼼하게 감수해준 원주 신림초등학교 최일호 교장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덕현 간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워크북을 기획, 집필, 편집하느라 애쓴 아태교육원 연구개발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워크북에 담긴 다양한 활동들이 학교 안팎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내 안의 변화, 주변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일구어 내는 데 작은 힘을 보탬 수 있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워크북 활용법

Q1

이 워크북의 주요 학습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이 워크북의 학습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입니다. 하지만 특정 학년의 교과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된 워크북이 아니므로, 교사의 판단 및 학습 수준에 따라 급별에 상관 없이 수업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각 활동별 소요시간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A2

이 워크북은 교사가 그 구성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열어두었습니다. 각 활동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몇몇 단계를 제외하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Q3

이 워크북에서 강조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3

이 워크북에 구성된 활동은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teaching) 초점을 맞추기 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facilitating)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다음과 같은 참여적이며 변혁적인(transformative) 교수법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 학습자 중심, 전인적 교육
- 지역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 책임에 대한 인식 향상
-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학습환경 장려
-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규범, 국가 정책 및 국제 체제 인식
-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북돋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문제 해결 지향
- 위기극복 능력과 실천 역량 개발

* 참고: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Q4

이 워크북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A4

이 워크북은 학습자가 인류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통, 협력, 창의 및 실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인권과 사회정의, 다양성, 평등,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워크북의 주된 목적입니다.

* 참고: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Q5

PDF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A5

이 워크북은 아태교육원 국문 홈페이지(<http://unescoapceiu.org/ko/>)의 EU 자료 → 출판물 → 단행본 목록에서 PDF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

01

나도 세계시민일까?

학습목표

- 세계화로 인해 강화된 상호연결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고 나와 세계가 이어져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연결로 인해 나의 선택과 행동이 지구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1-1

지금
우리 지구는?

- **활동형태** 생각 키우기
- **준비물** 워크시트 1-1(1인 1장), 필기구
- **학습주제** 지금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단계

활동

| 진행방법 |

- 워크북의 인포그래픽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의미를 분석해봅니다.
- 사례를 통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 각 질문에 답을 작성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유해봅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워크북의 인포그래픽 자료를 통해 심화된 세계화의 정도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이 워크북의 PDF파일을 교실 내 화면에 띄워놓고 학생들과 함께 한 항목씩 읽어가도 좋습니다.
- 각 그래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학생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표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가적으로 길러줄 수 있습니다.
- 이어서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해주세요.
-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한 개인 또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특히 난민, 삼림파괴, 분쟁, 기후변화 등과 같이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 해주세요.
-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행동들이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의 마음 속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2단계

정리 토론

| 진행방법 |

- **사례1**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해봅니다.
 - 투발루 총리의 호소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학생들이 투발루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투발루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공유합니다.)

[참고]

- **환경친화적 상품 구입하기:** 물건을 구입할 때는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환경친화적 상품을 사는 것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시켜준답니다.
- **고기 덜 먹기:** 가끔 한번쯤은 채식주의자가 되어보세요. 육류생산업은 사실 환경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재활용하기:** 쓰레기는 적으면 적을수록 환경에 이롭겠죠? 종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 오래된 가전제품 등을 분리해보아요. 이 모든 건 재활용이 가능하니 가까운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보면 어떨까요?
- **불 끄기:** 전기를 덜 쓰면 자연에 영향을 덜 끼칠 수 있어요.
-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출처: Young Person's Guide: Changing the World Edition

(https://www.unv.org/sites/default/files/Young_Persons_Guide_Changing_the_World_FINAL.pdf)

• 사례2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해봅니다.

- 우리가 별생각 없이 구입하는 휴대폰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나요?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우리는 어린이들의 핏자국이 묻은 콜탄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 지불되어 채굴된 콜탄이 쓰여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2013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공정한 휴대폰이란 뜻의 '페어폰(Fair Phon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그 소사이어티'의 아벨(Bas van Abel)이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그 소사이어티는 휴대폰 광물의 아픔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공정무역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매달 약 6,500대의 휴대폰이 분실물센터에 쌓이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좇는 습성으로 인해 휴대폰을 자주 바꾸고 잃어버려도 잘 찾아가지 않지요. 우리가 휴대폰을 조금만 소중하게 쓰면,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보호하고 우리 삶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출처: 박경화, 복센스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오마이뉴스 <당신이 쓰는 휴대폰 속 '피의 광물'>

※ 교사를 위한 팁

- 시간배분이 가능할 시 아래 참고자료에 나와있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학생의 이해를 돕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 사례를 통해 학생이 공감을 표하고 본인의 가치와 태도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독려해주세요.

참고자료

• 사례 1 관련

- 지식채널e 〈Somewhere over the rainbow〉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177984>
- EDNET T-Clear 〈환경을 위한 세계적 노력〉
http://www.edunet.net/hedu/contsvc/viewWkstCont.do?class_id=CLSS0000000362&menu_id=81&contents_id=375dc0a0-c808-4e62-9b2b-21b7c6541ca4&svc_class_id=CLSS0000017799

• 사례 2 관련

- 오마이뉴스 〈당신이 쓰는 휴대폰 속 '피의 광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4964
- 박경화, 복센스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Bas van Abel, TEDxAmsterdam 〈Fairphone: changing the way products are made〉
<https://youtu.be/96X1mrJMINU>
- 배움너머 〈콜탄의 나라 (초6 사회)〉
<http://www.ebs.co.kr/tv/show?prodId=10294&lectId=3100421>

1-2

나는 '100퍼센트 한국인'일까?

- **활동형태** 그림 그리기, 영상시청, 전체 발표 및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1-2(1인 1장), 필기구(색연필, 사인펜 등)
- **학습주제** 내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내 모습 그려보기

| 진행방법 |

- 랠프 린턴이 쓴 '100퍼센트 미국인'을 읽어봅니다.
- 삽화를 참고하여 '100% 나'를 그려봅니다
- 내가 그린 나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퍼센트로 말해볼까요?



※ 교사를 위한 팁

- 종이에 학생 각자의 모습을 그려보고 본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입고 있는 옷, 쓰고 있는 연필, 신고 있는 신발이 어디서 왔는지 말이죠. 만들어진 국가를 알 수 있다면 그림 속에 함께 적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그림에 대해 발표하게 합니다.
- 학생들이 지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모습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이 활동은 우리가 자각하지 않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나 자원의 이동, 국가 간 무역 등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찾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나는 '100퍼센트 한국인'일까?

| 진행방법 |

- 다음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공유합니다.
EBS뉴스, [뉴스G] 당신은 100퍼센트 순수 한국인입니까?
https://youtu.be/zxAoW_5xpEg



- 토론 질문 ① 나를 '100퍼센트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② 나를 '세계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가요?

※ 교사를 위한 팁

- 참고로 위 동영상 속에서 나오는 실험은 광고를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실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다 이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나도 세계시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죠. 마무리 활동을 진행한 뒤에는 그룹별로 느낀 점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 세계화는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무역, 이주와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 갈등과 분쟁, 실시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우리의 개인적·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이 단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죠. 즉, 세계 거의 모든 장소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구축돼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성의 세계적 차원'은 시민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식들을 넘어 전인류 공통의 정체성인 '세계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가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3

너와 나의 연결고리

- **활동형태** 그림 그리기, 전체 및 모둠 활동
- **준비물** 워크시트 1-3(모둠별 1장), 필기구(색연필, 사인펜 등), 탈실 (색이 다른 탈실 - 모둠별로 한 타래씩), 테이프
- **학습주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지구와 우리의 연결고리

| 진행방법 |

- 대략 4~5명씩 한 모둠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합니다.
- 워크시트 1-3에 한 명씩 돌아가며 '지구'부터 시작해 앞 동그라미에 적혀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례로 적어봅니다.
- 동그라미를 다 채우면 본인이 쓴 단어를 크게 적어 가슴팍에 붙입니다.
- 모둠원에게 이 단어를 왜 선택했는지 설명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표의 가운데가 반드시 '지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대신에 '나'를 넣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수업 내용에 맞춰 주제를 변경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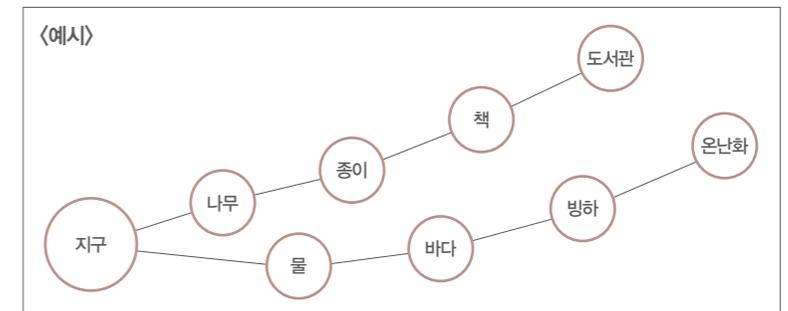
2단계

탈실 던지기

| 진행방법 |

- 책상을 치우고 의자만 등글게 배열하여 서로를 마주보고 앉습니다.
- 앞선 단계에서 정한 모둠이 서로 뒤섞여서 앉아야 합니다. 즉, 같은 모둠에 속한 친구가 옆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리를 골고루 섞어 배치해주세요.
- 각 모둠에서 첫 단어를 쓴 학생들은 탈실 한 타래씩을 가지고 본인이 쓴 단어가 왜 지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 단어를 적은 모둠원에게 탈실을 넘기게 합니다.
- 선생님은 칠판에 학생이 말한 단어를 넣어 그물코를 만들어 나갑니다.



- 털실을 받은 모둠원도 왜 이 단어가 앞선 모둠원이 적은 단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다음 단어를 적은 모둠원에게 털실을 넘깁니다. (계속 반복)
- 털실의 한끝을 모든 사람이 쥐게 되면 털실 거미줄 완성!
- 학생들이 써낸 단어 중 하나를 선생님이 부르면 그 단어를 붙이고 있는 학생(들)이 털실을 쥐고 있는 손을 흔들게 합니다. 그 흔들림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지는지 물어보고 그 소감을 공유하게 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한 타래의 단색 털실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털실을 모둠별로 한 타래 정도 준비하여 섞어가며 사용하면 연결성과 함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 활동 중 흐름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며 처음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털실이 이어진 만큼만이라도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그 함의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 이 활동은 학생들 서로가 털실로 이어진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로서의 상호연결성과 지속성을 상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털실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털실과 얽히고 설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세상)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 특히 개별적인 움직임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나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변화 시키기도 한다는 점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나비효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은 우리 개개인이 사회에 대해 지닌 책임감을 상기시켜줍니다.

02

내 안에 내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학습목표

-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다양한 특성이 작용하며, 모든 사람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정체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2-1

 사람을 찾습니다
 다양성 빙고

- **활동형태** 참여 활동, 전체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2-1(1인 1장), 필기구(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 등)
- **학습주제** 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친구들의 다양한 개성을 발견해 봅니다.

1단계

활동

| 진행방법 |

- 빙고판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한 장씩 나눠줍니다.
- 교실을 돌아다니며 빙고판에 나오는 질문에 해당하는 친구와 질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해당하는 칸에 친구의 이름이나 사인 등을 받습니다.
- 친구 한 사람 당 한 칸씩만 빙고판을 채울 수 있어요.
- 빙고판을 모두 채운 참가자는 “빙고!”라고 외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빙고판의 질문은 참가자 그룹의 성격과 수업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취미, 기호뿐 아니라 국적, 가족구조, 신념 및 종교, 경험 등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해 보세요.
- “빙고!”를 다른 참가자보다 빨리 외치도록 경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빙고를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친구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참가자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빙고판을 완성하는데 혼란스러워 하더라도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2단계

정리 토론

| 진행방법 |

- 다양성 빙고가 끝난 이후에 학급 전체가 함께 다양성 빙고를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해봅니다.
 - 다양성 빙고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다양성 빙고 활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공통점/차이점)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친구의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빙고판을 완성하거나 거의 다 채운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 왜 그랬나요?
 - 어떤 칸의 주인공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나요?
- 학급 안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활동이 끝난 후 전체 자리에서 참가자들이 친구의 다양한 개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 주세요.
- 평소 조용하거나, 소극적인 친구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토론을 유도해주세요.

3단계

 마무리 토론
 “다양성이 존중
 받는 교실”

| 진행방법 |

- 다음의 형식에 맞춰 참가자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학급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다양한 개성을 이야기해봅니다.

“나는 ()한 사람/개성도 존중받는 교실이 되면 좋겠어.”

※ 교사를 위한 팁

-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참가자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건너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새로 발견한 친구의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 각자 자기만의 취미, 관심사, 능력이 있으며,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2-2

자기소개
나의 꽃 만들기

- **활동형태** 참여 활동, 전체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2-2(1인 1장), 필기구(색연필, 크레파스 등)
- **학습주제** 자신과 친구의 개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식과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해봅니다.

1단계

나만의 꽃 만들기

| 진행방법 |

- 워크시트 2-2를 활용하여 꽃잎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 다음의 공통 질문을 참가자에게 안내하고, 참가자는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을 꽃잎 한 장에 채워보도록 합니다.
 - ① 나의 장점은?
 - ② 나만의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 ③ 내 꿈/목표는?
 - ④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 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 교사를 위한 팁

- 질문은 참가자 그룹의 성격과 수업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기 개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해도 좋습니다.
- 꽃잎의 개수를 넉넉하게 그려, 공통 질문 이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색갈 칠하기, 콜라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단계

꽃잎 나누기

| 진행방법 |

- 꽃을 완성하면, 2명씩 짝을 지어 자기만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정해진 시간 동안 교실을 다니며 친구와 만나 이야기 나눌 꽃잎(질문)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 진행자의 신호에 맞춰 새로운 짝꿍을 찾아 이동합니다.
- 친구 한 명 당 한 개의 꽃잎(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꽃잎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짝꿍과 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나만의 꽃 만들기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참가자가 친구 한 명과 너무 짧게 또는 오래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질문당 이야기할 수 있는 제한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5분에 한 번씩 종을 울리고, 종소리에 맞춰 새로운 짝꿍을 찾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종 대신에 음악을 틀어 춤을 추고, 음악이 멈추면 새로운 짝꿍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주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진행자가 주제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사람과는 질문 ①, 두 번째 사람과는 질문 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3단계

전체 토론

| 진행방법 |

- **모둠별 활동이 끝난 후에 학급 전체가 함께 나만의 꽃 만들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공유해봅니다.**
 - 학급 전체에게 자신의 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나만의 꽃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기 가장 쉬웠던 질문은 무엇인가요? 왜 그랬나요?
 -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려웠던 질문은 무엇인가요? 왜 그랬나요?

※ 교사를 위한 팁

-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경험, 개성 등이 각자의 정체성이며,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모두 존중받고 중요한 가치임을 알려줍니다.
- 한편, 나의 정체성이 소중하듯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은 모두 소중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진지한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단계

우리 반
꽃밭 만들기

| 진행방법 |

-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 각자의 워크시트에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씁니다.
- 참가자의 이름을 활동의 가장 마지막에 쓰는 의미에 대해서 진행자가 안내해 주세요.
- 완성된 나만의 꽃은 학급의 벽에 모두 붙여 우리 반 꽃밭을 만들어봅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우리는 이름, 나이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는 마지막에 이름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참고

정체성과 다양성 존중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특징, 본질적 성질을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머리 색깔, 눈동자 색깔 등 나의 신체적이고 선천적인 특징과 취미,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등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가족, 단체, 관심분야 등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종교, 전통,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것도 있지만,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룹니다. 정체성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 한편, 집단의 정체성은 분열과 대립, 낙인찍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 빙고'와 '나만의 꽃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활동 목표는 모든 개인이 가진 개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양성에는 문화, 인종, 종교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관심사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계는 서로 전부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혹은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피부색, 민족, 국적, 계급, 종교, 신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장애, 건강상태 등을 조합하면 인간의 수만큼의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인권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인권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자료의 첫걸음이 됩니다.

출처: <나, 너, 우리모두> (Amnesty International UK, Amnesty International Irish Section)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 MODULE THREE -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RE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03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구나!

학습목표

-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회·문화·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차별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고 주장하도록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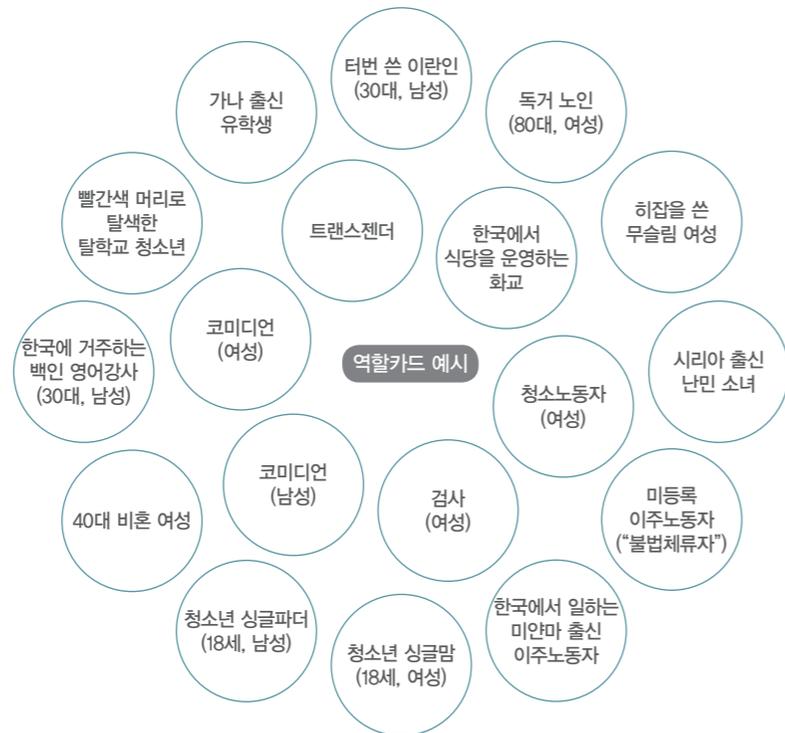
3-1 역할 카드 나는 누구일까요?

- **활동형태** 참여 활동, 전체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3-1의 역할카드(1인 1장)
- **학습주제**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에 공감하고, 성별, 피부색, 종교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발견합니다.

1단계 역할카드 나누기

| 진행방법 |

- 모둠별로 모둠 구성원의 숫자만큼 빈 종이의 역할카드를 나눠줍니다.
- 모둠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인물에 대한 역할카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역할카드가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게 합니다.
 - 나이, 국적, 성별, 외모, 학력, 직업 등을 다양하게 반영한 인물을 구성해봅니다.
- 진행자는 모둠에서 작성한 역할카드를 모아 섞은 후에 참가자들의 등에 무작위로 붙입니다.
- 참가자는 자기 등에 붙은 역할카드를 볼 수 없습니다.
-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는 등에 붙어있는 역할로 다시 태어납니다.



2단계 나는 누구일까요?

※ 교사를 위한 팁

- 진행자는 모둠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역할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나이, 국적, 성별, 외모, 학력, 직업 등을 다양하게 반영한 인물을 구성해봅니다.
- 역할카드를 만들 때 당사자가 학급에 존재하고, 활동을 통해 당사자가 상처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 진행방법 |

-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등에 붙은 역할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참가자들 중에 다른 사람의 등에 붙은 역할 카드 중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설명해줍니다.
- 진행자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교실을 다니며, 다른 참가자의 등에 붙은 역할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 상상해봅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진행자도 활동에 참여하며, 활동을 실감나는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 역할카드에 대한 배경정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역할카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참가자들이 직접 얘기해볼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 참가자 중 역할카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참가자가 당사자의 이야기로 인지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는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카드는 사전에 제외해주세요.

3단계 토론하기

| 진행방법 |

- 역할카드 활동이 끝난 이후에 학급 전체가 함께 느낀 점을 공유해줍니다.
 -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었던 역할카드가 있나요? 왜 그런가요? 그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내가 진짜 그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 발표자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생각과 감정이 든 사람을 찾아봅니다.
- 참가자들이 자신의 등에 붙은 역할카드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 되었을 때의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 위축되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었나요? 왜 그런가요?
 - 기세등등 해졌나요? 왜 그런가요?
 - 우리가 가진 선입견은 당사자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했을까요?
- 역할카드를 살펴보고, 성별, 나이, 직업, 국적, 외모 등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 진행자는 성별, 나이, 직업, 국적, 외모 등에 대해 선입견이 사회·문화·제도적인 차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역할카드에 나온 사람들이 겪는 사회·문화·제도적인 차별을 찾아봅니다.
 - 사람들의 선입견은 어떻게 사회/문화/법률적인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질까요?

※ 교사를 위한 팁

- 증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역할카드의 등에 붙은 참가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동요를 보살펴주세요. 증오표현을 말한 참가자가 있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게 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주세요.
-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역할카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소수자 또는 집단에 대한 무지, 강한 선입견과 편견)
- 비슷한 감정을 느낀 참가자들을 찾아보고 그 역할카드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발견해봅니다.
- 차별 당하는 사람의 소외감, 무기력, 소외감, 불안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3-2
스펙트럼 토론
다양성을 해치는
우리 안의 고정관념

- **활동형태** 참여 활동, 전체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3-2(1인 1장), 필기구
- **학습주제** 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1단계
나는 어디인가요?

| 진행방법 |

- 활동을 하는 공간의 양쪽 끝에 “동의한다 (100%)” “동의하지 않는다 (0%)”라고 표시해둡니다.
- 참가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해진 공간 안에 흩어집니다.
- 진행자가 예문을 읽습니다.



- 참가자들은 예문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정합니다. (100% 동의할 경우에 가장 끝에, 0%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편 끝에 서고,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100%와 0%의 중간에 서도록 합니다.)
- 참가자들끼리 동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진행자는 참가자 집단의 성격과 수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서 진행해주세요. 학급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책상을 교실 모퉁이로 밀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2단계
예문에 대해
토론하기

| 진행방법 |

-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해 봅니다.
 - 예문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른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자신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며 참가자들의 논의를 촉진해줍니다.
- 한 개의 예문에 대해 다양한 위치의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3단계

고정관념이 만든 차별

※ 교사를 위한 팁

- 예문 중 다수는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 학습의 상황과 주어진 시간에 따라 예문 카드를 모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특정 인권에 초점을 맞춰 해당되는 카드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수업시간과 활동 목표에 따라 진행자는 예문의 내용과 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 진행방법 |

- 다양한 예문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에 예문에 나오는 집단에 대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 진행자는 예문이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작용한 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 예문은 어떤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작용한 말일까요?
 - 나 또는 다른 누군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근거한 말 또는 태도를 본 적이 있나요?
 - 우리 주위에 예문에 나오는 집단이 실제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 다음의 예문 토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뀌어야 할 편견/실천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 참가자들이 다른 차별 사례를 찾아봅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특정 예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문들을 해소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진행자는 스펙트럼에서 나왔던 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사회적 편견과 의문에 대해서 논의를 정리해주고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심층질문 예시
 - 예문1. 휴식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당연한 것인가? 왜 문제인가?
 - 예문2. 성추행(또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남성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왜 여성을 비난할까요?
 - 예문3.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들으면 테러를 연상하지 않나요?
 - 예문4. 나이로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은 없나요? 정당하나요?
 - 예문5. 표현의 자유는 어떨 때 쓰는 의미일까요? 권력이나 힘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욕설과 비하하는 말의 목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진행자는 스펙트럼 토론에 나왔던 대상이 실제로 차별 받는 사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여주세요. (※ 영상 자료)
- 참가자들 스스로 자기 주위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 발표해도 좋습니다.

[영상자료]

- 편견 / 빈곤 Ted - 단편적인 이야기의 위험성(The danger of a single story)
<https://youtu.be/D9lhs24tzeg>
- 여성 별별이야기 '그 여자네 집'(2003)
허프포스트코리아 - 이 유럽의회 의원이 성차별 발언에 대처하는 자세
<https://youtu.be/VyJ-6yR8XJ8>
- 난민 세이브더칠드런 - Don't Panic
<https://youtu.be/Gr-D-z6DHbw>
- 나이 비디오머그 -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대한민국 18세는 정치만 19급
<https://youtu.be/npgxQEIp00c>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세바시 - 790회 혐오표현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가(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https://youtu.be/veicmwanP_E

4단계

전 세계의 약속, 세계인권선언!

| 진행방법 |

- 참가자들에게 세계인권선언 요약본(워크시트 3-2)을 나눠줍니다.
-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구성,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스펙트럼 토론 활동을 했던 예문과 사례가 세계인권선언문에 개괄된 조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해보도록 합니다.
- 세계인권선언을 꼼꼼히 읽어보고,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례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교사를 위한 팁

- 수업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인권 내용과 자신의 삶을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영상자료]

- 인권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UwSU8krLNfQ>
- 지식채널e 모든사람 1부 최소한의 목록
<https://youtu.be/kH3dwMAJ704>



참고

차이와 차별

차별은 사람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를 이유로 권리를 부인할 때 발생합니다. 차별은 사람들의 인권을 부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혹은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분, 배제, 제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신념, 성별, 성적체성, 나이, 장애, 등의 요소를 근거로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차별이 발생합니다.

차별은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장애, 결혼 여부 등 차이를 구분 지으며 발생하고, 차별 받는 대상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한 집단(여성, 아동, 선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입니다. 차별은 특정한 문화적 신념이나 관습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로 제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인권과 세계인권선언

인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기에 조건 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시간,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도 이 권리를 부인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① 인권의 가치와 원칙

인권은 다양성, 정의, 평화, 존엄성, 평등, 비차별, 포용 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권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 **보편성:**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피부색, 나이, 성별, 국적, 경제상황, 신체조건, 성적지향 등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어떠한 특징에도 상관없고 예외없이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 **양도불가성:** 인권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비상상태 등 어떠한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에도 거부, 지연될 수 없습니다.
- **불가분성:**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며 권리간의 우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중 어느 것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 **상호의존성:** 어떤 한 권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권리가 침해되면 다른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문화적 권리는 정치적·사회적 권리가 보호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요소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전해 질 수 있습니다.

② 유엔 세계인권선언

인권은 헌법과 법률 등을 통한 법적 보호와 시행으로 실현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법적 보호는 국가 간 합의된 공식적인 협정(조약)이나 국제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률과 조약은 국가가 인권을 증진 및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제정된 유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참상을 보고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국가들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민족국가의 자국 중심주의나 좌우 이념대결을 뛰어 넘어 오로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리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으로 인권의 증진·존중·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차별 사례

1. 빈곤

로마족은 'Romani'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흔히 (그들의 기원이 이집트에서 비롯되었다고 오인하여) '집시(Gypsies)'라고 불리는 소수민족입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로마족은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각 사회의 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로마족 차별의 역사는 뿌리깊습니다. 농노제도 아래 노예생활을 했으며 나치의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차별받는 민족으로 남은 로마족은 주거, 의료, 교육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임시거주지조차도 강제철거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로마족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각해 로마족이 아닌 학생들과 분리해 격리된 교실 또는 건물에서 수업하거나, 축소된 교육과정만 제공받기도 합니다. 2012년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등록된 로마족 아이 중 43%가 여전히 분리된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집시'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도,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로마족은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더 알아보기]

- 국제앰네스티 - 슬로바키아: 학교에서도 격리된 로마족 아이들 (<https://amnesty.or.kr/5818/>)

2. 여성

가) 슬럼

여성들은 화장실 부족 때문에 성폭행 혹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도 등 위생시설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해가 진 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가는 여성들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키베라(Kibera)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이 부족해 공용화장실 한 곳당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까지 사용합니다. 보통 15분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후 7시 이후에는 여성을 노린 납치, 성폭행, 폭행의 위협으로 여성들은 화장실을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위험한 곳에 간 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위험한 곳을 방치하는 국가와 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국제앰네스티 - 히든 피겨스와 여자 화장실 (<https://amnesty.or.kr/21849/>)
- 국제앰네스티 - 슬럼, 여기에 사람이 산다 (<https://amnesty.or.kr/campaign/슬럼/>)

나) 네팔 – 차우파디

네팔 일부지역의 차우파디(Chaupadi)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월경혈이나 출산혈이 불운과 재앙을 몰고 온다고 여겨, 월경과 출산시기 여성을 가족과 격리된 오두막이나 창고에서 지내게 합니다. 네팔에서 생리기간 중인 여성은 이 관습에 따라 안전하지 않고 불결한 장소에서 거주하며 위험에 노출됩니다. 10대 소녀가 오두막에 거주하며 뱀에 물려 사망하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피우다 연기에 질식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50여 명이 사망하고, 성폭력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네팔 중부와 서부 지역의 여성 50%가 차우파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팔 대법원은 2005년 ‘차우파디’를 뿌리깊은 여성차별 관행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네팔 의회는 ‘차우파디’를 요구하면 징역 3개월 또는 3천 네팔루피(3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알아보기]

- 기사 – 네팔, 생리 여성 격리하는 ‘차우파디’ 불법화 (<http://news.joins.com/article/21832103>)

3. 난민

모든 사람은 전쟁과 고문, 폭력과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피해 피난처를 구하는 과정은 또 다른 비극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까스로 도착하더라도 난민수용시설에 구금되거나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겨우 정착했다라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은 인종차별에 쉽게 노출되며, 사회보장서비스에서 배제되고, 고용주나 인신매매자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등 다시 인권침해를 겪습니다.

한국은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불분명한 기준과 절차로 난민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2017년 4월까지 한국의 총 누적 난민 신청자는 25,510명이지만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688명에 불과하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단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5.24)

독일 언론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유럽 망명길에 숨진 난민은 3만 3천 293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돼 세계에 충격을 던진 시리아의 3살 어린이 예이란 쿠르디와 터키의 허름한 난민캠프 텐트에서 동사한 4개월 아기 파리스 알리의 사례도 있습니다.

난민은 ‘나랑 상관없는 못사는 나라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민 문제를 알려주세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 제3국에 정착했던 한국인들이 난민이었고,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프레디 머큐리, 지네티 지단 등 과학자와 가수, 운동선수를 막론하고 유명인들 중에도 난민/이주민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더 알아보기]

- 난민인권센터 (<http://nancen.org/1622?category=118980>)

4. 나이

국회도서관은 자료실, 정보검색실, 논문실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18세 미만은 전문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시설을 특정연령의 이용만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이용 연령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국가인권위 결정례 10진정0431200). 2011년 청소년들의 문제제기로 국회도서관은 이용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기사 – 나이에 따른 서열과 연령차별 (www.huffingtonpost.kr/zooniil-yi/story_b_5054377.html)

5.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양심,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국제법상 범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개념이 오남용 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거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이지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기]

- SBS뉴스 - [취재파일]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가 부딪힌다면?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3889)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mnesty.or.kr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 MODULE ONE: POVERTY AND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 MODULE THREE –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RE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04

아하! 평화와 공존의 비밀

학습목표

- 평화와 공존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노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갈등을 파악하고 방지하여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4-1 터치터치

- **활동형태** 2인 놀이
- **준비물** 워크시트 4-1(1인 1장), 모두가 동그랗게 설 수 있고 몸 활동이 자유로운 공간
- **학습주제** 혼자 이기는 경쟁이 아닌 함께 이기는 협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1단계 활동

| 진행방법 |

- 모두가 원으로 동그랗게 서서 교사의 활동안내를 들었습니다.
- 본 활동은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악수하듯이 손을 잡고 하는 활동이며 활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의 손등을 나의 허리에 최대한 많은 횟수로 터치하면 이기는 게임
 - 주어진 시간은 1분
- 활동을 하면서 각자 자신의 파트너의 손등을 자기 허리에 몇 번 가져다 댔는지 그 횟수를 세도록 안내합니다.
- 교사는 1분의 시간을 재고, 1분에 도달하면 각자 몇 번씩 터치에 성공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활동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가능한 한 짧게 손등을 한 두 번 정도 허리에 대는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 예시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머뭇거리는 사람 없이 모두가 1분 안에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활동하는 과정에서 힘을 쓰느라 몸 움직임이 커지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왈카스처럼 시끄럽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으니 1분 정도 시끄러운 것을 너그럽게 허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성찰해 보기

| 진행방법 |

- 학급 안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팀과 가장 적은 횟수를 기록한 팀을 각각 많은 횟수의 터치에 성공한 팀을 원의 가운데로 초대하여, 좀 전의 활동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보도록 요청합니다.
- 마지막으로 교사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며 참가자들이 활동의 의미를 찾아나가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찰 질문 예시

- 활동을 하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 두 팀의 재연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활동방법 안내를 듣고 서로 팽팽하게 힘을 쓰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활동 중 서로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교사를 위한 팁

-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힘 겨루느라 결국 두 사람 모두 '0번' 또는 '1~2번' 터치한 경우
 - 한 사람이 힘이 세서 한 사람은 '수십 번' 파트너는 '0~2번' 터치한 경우
 - 두 사람이 모두 '30번' 이상 터치한 경우
 - 두 사람이 모두 '50번' 이상 터치한 경우
- 이처럼, 횟수와 진행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횟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동 형태로 팀들을 선생님 마음속에서 유형화해주세요. 그 후에 각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팀들을 하나씩 원 안으로 초대하여 활동 재현을 부탁하고 다같이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관찰합니다. 이 관찰은 이후 진행될 성찰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 성찰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선생님이 '많이 터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 안내했기 때문에 힘을 겨루고 '경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선생님께서는 '이긴다'고 말했지만 '명만 이긴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모두가 이기는 것'에 대한 화두로 그 질문을 연결해주시면 좋습니다.
- 성찰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선생님께서 바로 답을 알려주시거나 유도질문을 하시기 보다는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본 활동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함께 토론해 보기

| 진행방법 |

- 터치터치 활동 후의 성찰과 토론 과정을 길게 배치하여, '경쟁과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짧은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워크시트 4-1 활용)

함께 토론해 볼 주제

-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어떤 경쟁들이 있을까요?
- '경쟁'을 상상할 때 Win-Lose의 결론만을 상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경쟁이 폭력을 부추기는 경우는요?
- 모두가 이기는 경쟁은 가능할까요?



4단계

사례 찾아보기

| 진행방법 |

- 내가 이기면 누군가 져야만 하는 경쟁의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 이기는 경험이 곧 나도 함께 이기는 경험이 되는 사례들을 찾아보는 경험도 본 활동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는 갈등이 없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도록 해결되고 더 이상 ‘내가 이기면’ 자동적으로 ‘당신은 질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아닌 사회를 의미한다.”

- Gill Fell

참고 자료

- 현광일 지음, 살림터 <경쟁을 넘어 발달 교육으로>
- 이민화 지음, 시그니처 <협력하는 괴짜>
- 이대훈, 피스모모 출판사,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P.E.A.C.E 페다고지>
- 피스모모, <평화교육진행자되기 입문과정 Toolkit>

4-2

이웃들(Neighbours)
갈등지도

- **활동형태** 동영상 분석 및 모둠 토론, 개별 및 모둠 연구 발표
- **준비물** 워크시트 4-2(모둠별 1장), 필기구, 작은 포스트잇,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
- **학습주제**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인 및 공동체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영상 감상 후
갈등 단계
분석하기

| 진행방법 |

- 5~6명의 모둠을 구성합니다.
- “이웃들”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극 중 갈등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할 것을 권하면서 영상을 상영합니다. 워크시트나 포스트잇은 아직 나눠주지 않습니다.
- 첫 감상 후 일반적인 소감을 나누기 위한 질문들을 공유합니다.
 - 어떤 느낌이 드는지?
 -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 갈등이 촉발된 순간은 언제였는지?
 - 그 때의 몸 동작은 어땠는지?
 - 더 큰 갈등과 폭력을 유발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질문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을 교사가 칠판/보드에 적어가면서 갈등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서서히 상승하며 매 단계 갈등이 심화되도록 하는 요인들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 포스트잇을 모둠별로 나누어줍니다.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각자 포스트잇에 “매 단계 갈등의 상승 과정, 그것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요인들은 키워드로 포스트잇 한 장당 한 단어씩 적어보도록 안내합니다.

영상자료: 노먼 맥라렌 (Norman McLaren) - 이웃들 (Neighbours): <https://youtu.be/4YAYGi8rQag>

※ 교사를 위한 팁

- 본 활동을 진행하시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영상을 미리 확인하고 각 활동 단계에 필요한 예시자료를 미리 만들어주세요. 흐름이 숙지되신다면 전체 활동 진행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 미리 준비된 예시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도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영상을 볼 때는 워크시트나 포스트잇이 전혀 없는 상태로 편안하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포스트잇이나 워크시트가 미리 보이면 머리를 쓰는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담에 영상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볼 때는 영화를 본다고 부담 없이 소개해주시고 영상에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2단계

갈등지도 만들기

| 진행방법 |

- 영상을 두 번째로 본 이후에는 모둠 안에서 우선 개별적으로 찾은 키워드들을 설명하면서 모둠 구성원이 찾은 것들과 비교하며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찾아보도록 안내합니다.
- 각 모둠별로 서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모둠별로 워크시트를 1장씩 나누어줍니다. 갈등 곡선을 칠판이나 화면에 띄워 갈등 곡선의 구성에 대해 안내하고 교사가 찾은 갈등의 요인들을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붙이면서 갈등지도 만들기 활동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 모둠별로 워크시트에 있는 “갈등 전 - 갈등 촉발 - 초기 대응 - 전개 - 위기 - 교착상태 - 하강”의 갈등 상승 단계를 보여주는 갈등 곡선 위에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 활동 예시 |



©피스모모

- 모둠별로 갈등 지도를 발표한 이후, 각 모둠별로 공유해준 갈등지도에서 우리 모둠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가 새롭게 나왔거나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들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종합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 종합성찰을 마무리하면서 교사는 본 영상을 만든 노먼 맥라렌 감독이 ‘한국전쟁’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합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두 번째 보기 전에 포스트잇을 나누어주시고 선생님께서 미리 작성하신 포스트잇의 예시를 한 두 장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꽃의 등장’, ‘손가락으로 자기 가리키기’, ‘선 곳기와 같이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된 키워드들이 한 장에 하나씩 적혀 있으면 좋습니다.
-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어가며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워크시트를 나누어주세요. 워크시트를 나누어주신 이후에는 칠판이나 보드에 갈등곡선을 그려주시고 미리 만들어주신 키워드가 적힌 포스트잇 몇 장을 선생이 생각하시는 갈등의 단계에 붙여서 갈등지도 그리기의 예시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3단계

마무리 토론

| 진행방법 |

- 교사는 참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유도합니다.
 - 노먼 맥라렌 감독은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 왜 한국전쟁이 이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어떻게 개입하여 갈등이 폭력적인 형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해내는 계기를 만들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봅니다.
-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일상과 지역, 국제 수준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세계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일상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해보도록 안내합니다.

심화

학습 수준에 따라 다음의 심화 활동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냉전과 한국전쟁 타임라인 만들기

| 진행방법 |

- 교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활동을 제안합니다.
 -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 한국전쟁 이후 냉전 종식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 모둠별로 컴퓨터나 휴대폰 검색을 활용해서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냉전종식 이후 지금까지 어떤 흐름과 논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타임라인을 만들도록 안내합니다.
- 타임라인 작업을 마친 후에는 각 그룹이 만든 타임라인을 발표하고 타임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과 느낀 점, 연결되어 떠오르는 점들을 나눕니다.
- 발표를 마친 후에는 이웃들(Neighbours) 영상과 냉전과 한국전쟁 타임라인 작업을 연계하여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어떻게 개입하여 갈등이 폭력적인 형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두 번의 세계대전, 냉전시대와 한국전쟁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두었는지도 타임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 타임라인에 정리된 사건들 중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해내는 계기가 되거나 갈등을 해소했던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전쟁을 예방하거나 무력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무기거래조약과 유엔군축위원회 및 대인지뢰금지협약 등 다양한 평화단체들의 캠페인을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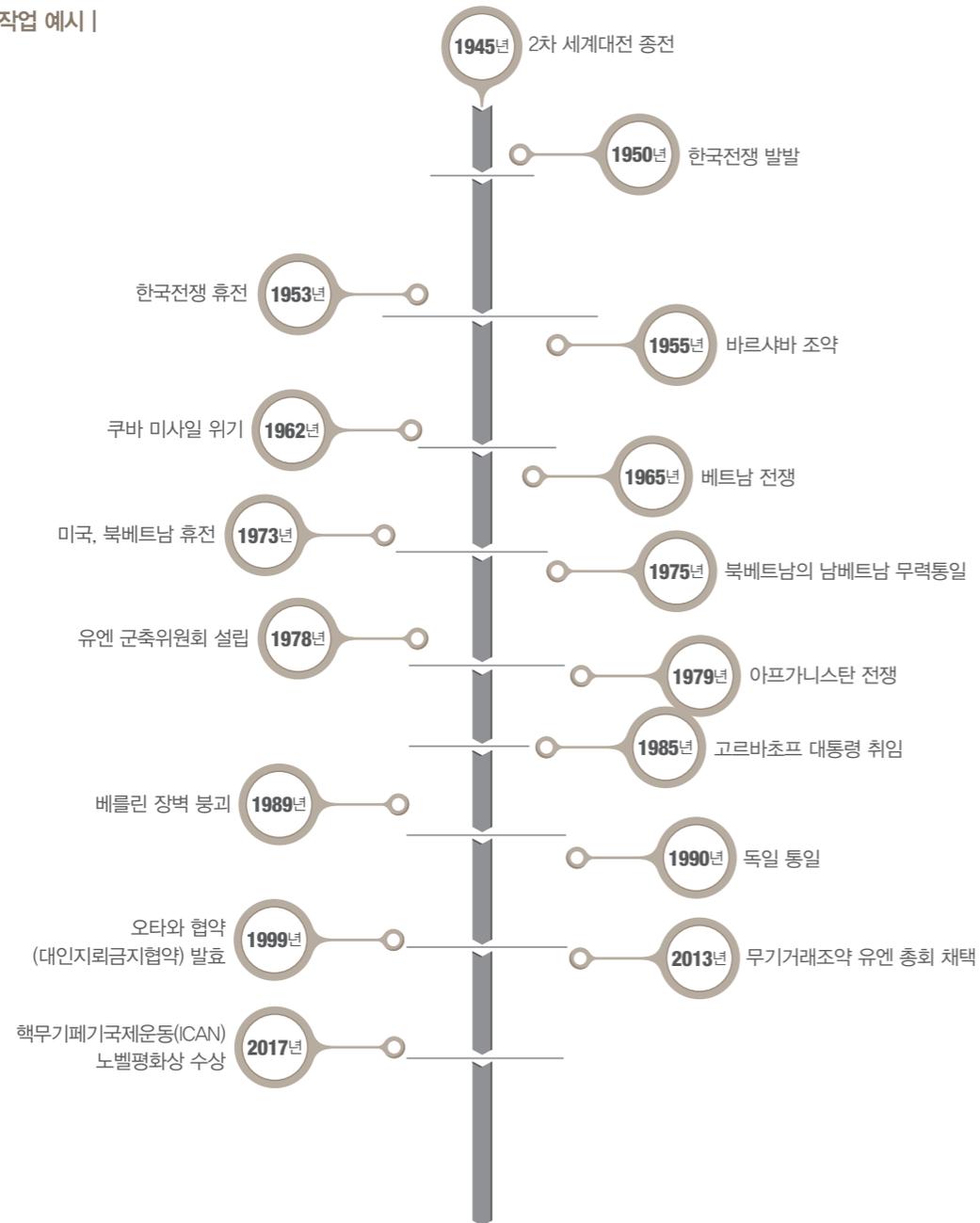
※ 교사를 위한 팁

-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어려울 것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데이터가 없는 친구들의 경우가 있으므로 냉전시대와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모두가 동일한 시간대에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 이용시간을 안내해 주시거나, 교실의 교사용 컴퓨터를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또는 관련된 자료를 다양한 형태(뉴스기사, 칼럼, 연구논문, 교과서 내용, 이미지 등)로 미리 인쇄해서서 모둠별로 나누어주시는 방법도 고려해주세요.
- 타임라인의 경우 아래 선생님을 위한 간략한 예시를 다음 장에 넣어두었습니다. 1945년부터 2017년까지를 범위로 주시고 그 안에서 일어난 세계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들을 통해 전쟁들이 발발했고 냉전시대가 일어났으며 어떻게 냉전이 종식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찾도록 안내해주세요.
- 충분한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함으로써 해야 하는 과제보다는 스스로 배움을 찾아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고 자료

- 타임라인 작업 참고 사이트: <http://historymssmith.blogspot.kr/2011/09/cold-war-timeline-activity.html>
- 앰네스티 - 무기거래조약이 궁금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https://amnesty.or.kr/6724/>
- 〈처음 세계사. 10: 현대 세계의 냉전과 변화〉 초등역사교사모임 지음, 서울대 뿌리 깊은 나무 감수, 주니어RHK

| 타임라인 작업 예시 |



05

삼푸를 쓸수록 숲이 사라진다고?

학습목표

- 내 소비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세계화를 통해 나와 다른 나라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팜유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5-1

물건에
감춰진 비밀

- 활동형태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5-1(1인 1장), 필기구
- 학습주제 내 소비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단계

활동

| 진행방법 |

- 수업 전 도입으로 다음의 영상자료를 시청합니다. 인간의 소비활동이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3분 36초짜리 영상입니다.
MAN: <https://youtu.be/WfGMYdalCIU>
- 워크시트 5-1에 있는 그림을 보며 문제의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이 중에 내가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매일 사용하는 물건, 일주일에 3~6번 이상 사용하는 물건, 일주일에 1~2번 사용하는 물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구분해 보면서 우리 일상과 팜유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는 활동입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5개를 골라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 물건들이 모두 없어진다면, 내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이 사라진다면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자유롭게 상상한 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바로 팜유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절반에 사용될 정도로 팜유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팜유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팜유의 이름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포장지를 살펴보면, 어떤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성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팜유가 적혀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어 소비자가 팜유의 존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이 중 팜유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두 팜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소량만 사용된 원료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식물성 유지인데, 식물의 종류가 다양해서 이름만 보고는 팜유인지, 콩 기름인지, 옥수수 기름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화학 제품의 경우, 화학 물질 이름을 적기 때문에 복잡한 이름만 보고는 팜유가 들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세계화나 환경 문제와 같은 수업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활동을 시작할 경우에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갖습니다.
- 활동에 제시된 질문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2단계

팜유는
무엇일까요?

| 진행방법 |

- 팜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먼저 설명을 제공합니다.



- **팜유란?** 팜유는 야자 나무의 일종인 팜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팜 나무 열매는 포도처럼 한 송이에 작은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한 송이에 달린 작은 열매만 1000~3000개 정도 되며, 열매는 일 년에 3~4번 수확할 수 있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여기에 더해, 팜유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가격이 비싼 동물성 기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팜유를 찾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1999년에는 식물성 기름 전체 소비량의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3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 세계 팜유의 절반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2

팜 농장의 비밀

- 활동형태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5-2, 필기구
- 학습주제 팜유를 둘러싼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1단계

팜 농장에 대해
알아보기

| 진행방법 |

- EBS 다큐멘터리 <인도네시아, 사라져 가는 숲의 기록>을 시청합니다.
 - 2편(1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uGkSGQ4JFY&t=220s>
 - 3편(11분): <https://www.youtube.com/watch?v=PPKPTI8-WEQ&t=333s>
 (인도네시아의 실제 모습과 통계 자료, 전문가 인터뷰가 나와 있어서 팜유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팜유와 관련된 통계뿐만 아니라 주민과 회사와의 갈등, 열대우림과 팜 농장의 모습, 팜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불에 타는 열대우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1~3편으로 10분씩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2편과 3편이 수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 팜 농장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알아봅니다.

팜유가 왜 문제일까요?

사람 사이에 땅 거래를 하듯 국가간에도 땅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팜 농장은 국제 토지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팜유가 인기가 높아지자 다국적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팜 열매 재배에 뛰어 들었습니다. 이들과 거래를 하는 나라는 땅이 넓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거래를 하는 이유는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팜 농장을 만들 땅이 필요하고, 인도네시아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팜 농장을 건설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넓은 땅을 저렴하게 빌려준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사 된 후, 팜 농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팜 농장을 건설할 토지는 사람들과 동식물이 어울려 살고 있는 열대 우림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팜 농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숲에서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는 주민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터무니 없이 적은 보상을 주고 강제로 내쫓은 뒤, 숲을 불태우고 그 위에 대형 팜 농장을 짓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의미로 국제 사회는 이런 토지 거래를 땅 뺏기(Land Grabbin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대 우림이 불에 타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도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의 토양은 오랜 시간 식물이 분해돼 만들어진 이탄지입니다. 이탄지는 일반 토양과 비교해 탄소 저장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반 숲에 비해 20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습지가 불에 타면 그 동안 저장하고 있던 탄소가 모두 밖으로 배출됩니다. 숲이 불에 탈 동안 인도네시아는 물론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 국가들은 많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의 스모그에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방출로 지구온난화 역시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열대 우림이 파괴되자 많은 동물들은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은 불에 타서 목숨을 잃거나 밀렵꾼들의 표적이 됩니다. 보금자리나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올 경우 마을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현재 피그미 코끼리, 수마트라 호랑이, 보르네오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 수마트라 코뿔소 모두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팜 농장이 건설 된 후에는 노동 착취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형 농장은 규모가 큰 만큼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농장 지배 인이나 매니저는 생계 수단을 잃은 원주민을 고용하거나, 다른 지역의 성인과 아이들을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이들의 농장 생활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자는 하루에 950kg의 팜 열매를 따고, 성인 여자는 비료 15~17포대를 뿌려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혼자서 하루에 끝내기 힘든 작업량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제 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남아서 일을 더 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처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을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데, 강제 노동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 형태입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성인들은 결국 자녀를 농장에 데려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농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팜 농장에서 아이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고된 노동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 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도 아동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일한다는 사실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이 말대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전보다 가난해졌고, 더불어 동식물들도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 안에 '인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팜 농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팜유 앞에 '분쟁'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2단계

팜 농장이 생기면?

| 진행방법 |

- 팜 농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적어보고 함께 토론할 수 있게 합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다국적 기업	• 팜유를 팔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팜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게 된다면, 나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 팜 농장 건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열대 우림이 불에 타는 동안 시민들은 심한 스모그에 시달립니다. • 다양한 동식물과 관광 자원을 잃게 됩니다. • 팜 농장에서 일하느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미래의 인재를 잃게 됩니다. • 노동을 착취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인권 문제가 생깁니다. • 땅을 놓고 주민과 회사 간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분쟁이 늘었습니다.
숲에 사는 주민		• 집과 생계 수단을 잃어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 팜 농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며 가난한 삶을 살아 갑니다. • 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려 주게 됩니다. • 회사와 주민간의 무력 분쟁으로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숲에 사는 동물		• 숲이 불에 탈 때 목숨을 잃거나, 밀렵꾼들에게 붙잡혀 팔려갑니다. •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와 가족에 피해를 입힐 경우,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 멸종 위기에 처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주변 국가	• 지금처럼 팜유로 만들어진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열대 우림이 불에 탈 때 멀리까지 연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 나라들은 스모그에 시달립니다. • 습지가 저장하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온난화가 심해집니다. • 팜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윤리적일 경우, 소비자로서 죄책감을 떠안게 됩니다.

-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한 뒤 팜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팜 농장 vs 열대 우림

| 진행방법 |

- 팜 농장과 열대 우림 보존의 가치를 비교해 보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 인도네시아 열대우림과 팜 농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도네시아 열대 우림의 토양은 오랜 시간 식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이탄지입니다. 이탄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물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탄지는 자신의 무게보다 13배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 덕분에 우기 때에는 많은 물을 흡수해 홍수를 예방하고, 건기 때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이탄지가 불에 태워져 사라질 경우 이런 혜택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열대 우림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희귀한 동물이나 곤충, 식물을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팜 농장은 열대 우림만큼 다양한 동식물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팜 나무와 팜 농장 주변에 식물들과 곤충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숲을 지키던 커다란 나무와 야생 동물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숲이 불에 태워진 후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팜 농장에 오기도 하는데, 농장에서는 동물들이 농장에 피해를 입힐까 무서워 덩을 놓습니다. 실제로 팜 농장에서 뿌린 쥐약을 먹고 목숨을 잃은 코끼리 이야기가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열대 우림을 보존할 경우	가치 비교	팜 농장을 건설할 경우
◎	물을 공급해 줘요.	○
◎	홍수를 예방 할 수 있어요.	○
○	농사를 할 수 있어요.	◎
◎	관광을 할 수 있어요.	○
◎	다양한 생물을 보존할 수 있어요.	○

참고 자료

-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74~89쪽:
국제 토지 거래와 팜 농장에서 벌어지는 아동 노동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아동 노동(세계시민수업4)」, 70~82쪽:
팜 농장에서 벌어지는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5-3

팜유의 이름을 찾아 주세요!

- **활동형태** 토론, 캠페인
- **준비물** 워크시트 5-3(1인 1장), 필기구, 캠페인 준비 도구(색연필, 하드보드지, 가위, 풀 등)
- **학습주제** 팜유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소통하는 법을 익힙니다.

1단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진행방법 |

- 팜유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 학생들의 생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 파푸아 뉴기니 콜링우드만에서는 주민들이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과 소송을 통해 팜 농장 건설을 막아냈습니다.
 - 체코에서는 2월 1일을 팜유 없는 날로 정해 시민들에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팜유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윤리적인 팜유가 들어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불매 운동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 캠페인이라는 활동이 지닌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특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서명을 통해 인도 인권 활동가를 감옥에서 구해낸 12살 캐나다 소년 크레그
 - 점자 메뉴판 도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펼친 인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
 - 살색이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알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10대 소녀들

2단계

팜유의 이름 찾기 캠페인 계획하기

| 진행방법 |

-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에 앞서 팜유의 이름 찾기 캠페인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팜유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윤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물건에 팜유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성분표에 식물성 유지가 아닌 팜유라고 제대로 기록하는 팜유 표기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팜유 이름을 표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워크시트 5-3을 활용해 구체적인 캠페인 계획을 짜봅니다. 계획하고 있는 캠페인 장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캠페인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고, 캠페인을 한 곳에서 모여서 할 것인지 또는 모둠별로 다양한 장소에서 할 것인지, 캠페인 기간은 하루에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쉬는 시간을 활용해 할 것인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의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캠페인 장소를 선정하기 힘들다면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해보세요.

<캠페인 일정과 담당자 정하기>

예시) 캠페인은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캠페인 결과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인가? 준비물은 무엇인가?

진행 단계	해야 할 일	준비물	담당자	날짜
1. 계획	포스터 만들기	가위, 풀, 색연필	모두	0월 0일
	캠페인 장소 알아보기	없음	OOO	0월 0일

3단계

포스터 만들기

| 진행방법 |

- 물건에 감춰진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어떤 내용을 알릴지 적어봅니다.

<캠페인 포스터 내용 구상하기>

예시) 팜유는 무엇인가요? 왜 팜유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팜유에 대해 아시나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땅 뺏기를 막아 주세요! 피그미 코끼리, 수마트라 호랑이, 보르네오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 수마트라 코뿔소가 사라지고 있어요!	성분표에 팜유를 제대로 표기합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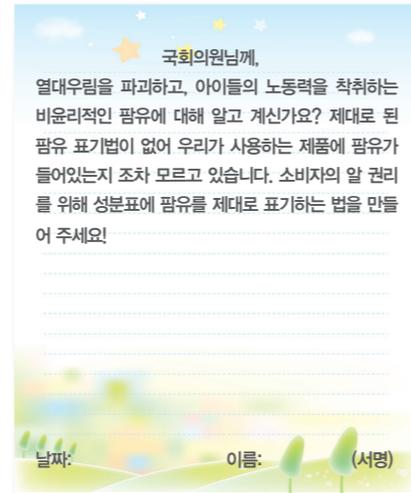
- 포스터 만들기 단계에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스터는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 크기가 적당한지,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이해하기 쉬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포스터는 꼭 한 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전달에 필요한 분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학생용 워크시트 5-3에서 필요한 그림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4단계

캠페인 실행하기

| 진행방법 |

-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실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캠페인 활동 시,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캠페인 내용에 동의한다면 국회의원에게 편지 쓰기 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 캠페인 참가자들이 편지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5단계

편지 쓰기

| 진행방법 |

- 이 활동의 목적은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알리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편지를 얼마나 모았는지 보다 전체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 주세요.

참고 자료

기사 자료

- 「프랜차이즈 카페에 점자 메뉴판 도입을... 여고생 4인방의 빛나는 도전,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2017.07.17
-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소녀들, 한국경제, 2005.05.20

도서 자료

-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93~97쪽
파푸아 뉴기니 콜링 우드만 원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지켜낸 과정과 비윤리적인 팜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 「아동 노동(세계시민수업4)」 82~85쪽, 131쪽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팜유 표기법 서명 운동과 12살 캐나다 소년이 서명을 통해 세상을 바꾼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06

윤리적 소비로
나도 세계시민!

학습목표

- 소비와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깨닫습니다.
-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활동을 찾아보고 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6-1
쌈, 쌈

- **활동형태** 전체 토론, 참여 활동
- **준비물** 워크시트 6-1(1인 1장), 필기구, 포스트잇
- **학습주제** 소비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무분별한 소비가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범주에서 생각해봅니다.

1단계
소비란?

| 진행방법 |

- 소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비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앴.
출처: 국립국어원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리는 평생 동안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화폐를 매개로 물건, 서비스, 자원 등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는 것은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현대사회는 소비사회로 규정될 만큼 소비영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활동을 사회 문화와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을 통칭합니다. 이상의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소비란 인간의 욕망과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욕망하는 소비는 결코 충족되지 못한 채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소비하게끔 귀결됩니다.

그 결과물이 가져오는 것은 지구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봤을 때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 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종식하고 지속가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의 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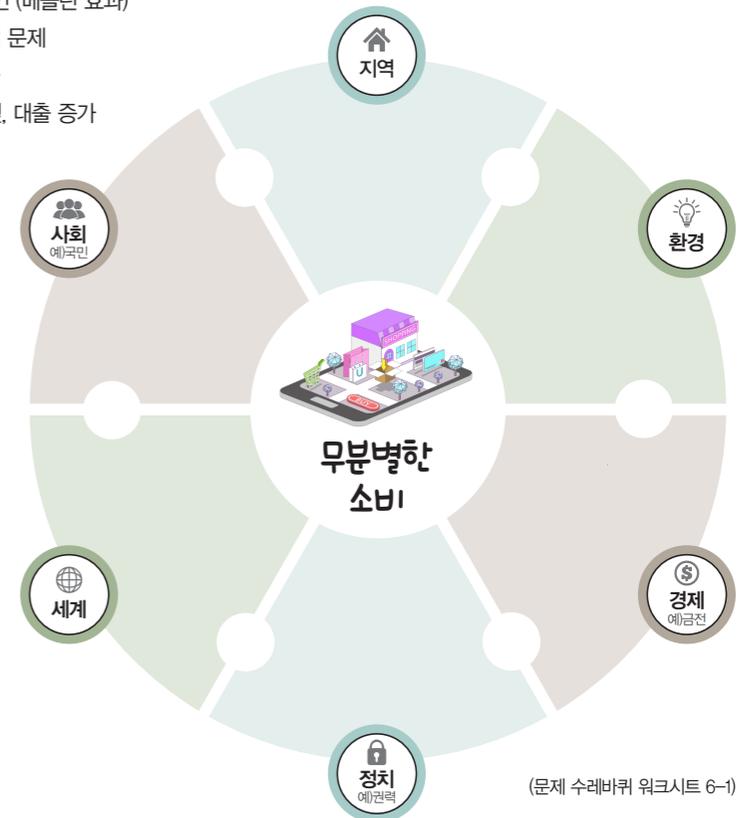
문제 수레바퀴

| 진행방법 |

- 인원은 한 모둠 당 5~7인으로 구성해 주세요.
- 인원수에 따라 10~20분 동안 진행해 주세요.
- 각 영역은 모둠원과 상의해 자유롭게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 후 그 내용을 범주에 적어 넣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포스트잇을 통해 의견을 먼저 적은 후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중첩된 영역이 있는 문제는 함께 의논해서 위치를 결정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문제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 서로 뜻이 다른 경우는 각자의 의견의 설득과정을 거친 후 모둠에서 합의합니다.
- 하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시)

- 사회: 과시적 소비 풍조 만연 (베블런 효과)
- 지역: 우리동네 쓰레기 투기 문제
- 환경: 쓰레기섬, 지구온난화
- 경제: 과소비로 인한 카드빚, 대출 증가
- 정치: 대기업과 정치결탁
- 세계: 환경오염



(문제 수레바퀴 워크시트 6-1)

※ 교사를 위한 팁

- '문제 수레바퀴' 활동은 학생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각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세계적 관점으로 중요성과 관련성을 분석한 후 학생들 스스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행 전 분석활동으로 활용됩니다.
- 범주 분류를 통한 다양한 문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 원활한 논의를 위해 모둠별 진행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범주별 상호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소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모둠별 토론을 통해 영역별 내용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혹은 빠르게 직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후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며 논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 개진 시 포스트잇을 효과적으로 사용)
- 주제별 관계성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인식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도 유의미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고 자료

OXFAM 외, 아름다운가게 <GET GLOBAL>
천경희 외, 시그마프레스 <착한소비 윤리적소비>

6-2

내가 사는 물건이
나를 설명해
준다고?

- **활동형태** 전체 토론, 개별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6-2(1인 1장), 필기구
- **학습주제** 소비가 지니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1단계

소비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 진행방법 |

- 다음의 아파트 광고 카피를 보고 상품과 소비에 대해 각자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만들어줍니다.

- **토론질문:** 1) 광고 카피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2) 나는 물건을 살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나요?
3) 다른 사람과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판단한 적이 있나요?

※ 교사를 위한 팁

-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 소비사회에서의 '상품'은 그 상품이 가진 실제적인 가치활용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욕구조작을 통해 형성된 체계 안에서 그 가치가 부여되는 소비대상이라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필요를 요하는 1차적인 욕망을 넘어섭니다.
- 현대사회의 소비는 소비 그 자체로만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는 소비문화와 연결되고, 형성된 소비문화는 소비사회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 소비문화 속에서 소비의 형태는 왜곡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개인이 상품 생산 논리에 부합되는 존재로, 소비의 유혹에 끊임없이 지배당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현대소비사회의 우려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비: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소비
 - 과시소비: 타인에게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
 - 의존소비: 광고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는 소비
 - 모방소비: 타인의 소비를 추종한 형태의 소비
 - 충동소비: 계획 없는 충동적인 소비



2단계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 진행방법 |

- 2인1조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 친구와 함께 지난 한 달 간 샀던 물건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니다.
- 그 물건을 왜 샀는지 각자 질문을 던집니다.
- 그 중에 가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해서 구입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함께 구분해 봅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소비를 통해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 개성을 주체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 우리는 환경을 위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농산물을, 공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무역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노동착취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를 구입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되고, 소비자의 취향에 민감한 기업들은 이에 발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투표활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소비생활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6-3

소비와 함께 오는 것

- **활동형태** 개별 활동, 전체 토론
- **준비물** 워크시트 6-3(1인 1장), 필기구
- **학습주제** 소비가 수반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1단계

소비의 과정

| 진행방법 |

- 워크북의 빈칸을 채워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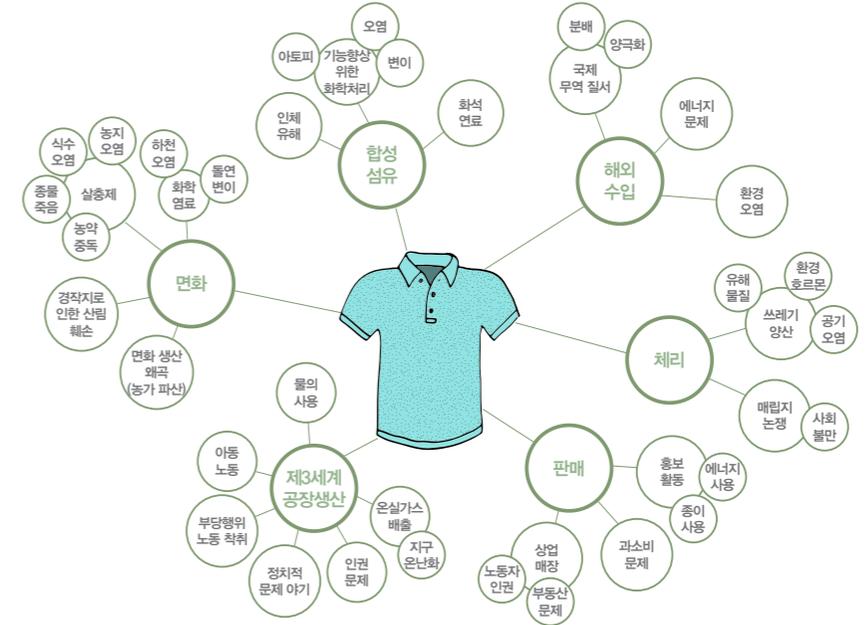
- 우리는 흔히 '소비'라고 하면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인 '구매'를 떠올리지만, '생산', '사용', '처분' 등 소비와 함께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봅니다.

2단계

티셔츠에 담겨있는 이야기

| 진행방법 |

- 티셔츠에서부터 이어지는 동그라미를 채워줍니다.
- 동그라미를 추가하여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 좋습니다.



- 완성한 내용을 발표하며 공유합니다.
- 토론 주제: 티셔츠 하나로도 우리는 세상 곳곳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로서 우리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얼마나 사용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교사를 위한 팁

- 티셔츠 생산에 사용되는 면화를 경작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 수입과 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 처리를 위한 환경문제와 사회적 문제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소비와 함께 오는 것임을 강조해주세요.
- 한 예로, 오늘 아침 우리가 먹고 마셨던 우유 한 잔, 바나나 한 개, 커피 한 잔 속에는 저 멀리 다른 대륙 생산자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비단 생산자뿐일까요? 생산 물품을 이동하는 물류 담당자, 그것을 관리하는 수입업자,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음의 영상자료를 통해 '소비와 함께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 햄버거 커넥션 <https://youtu.be/qMan5I0w7Hc>
 - 콜탄의 나라 https://youtu.be/b_aMMboMxv8



6-4
나도
윤리적 소비자!

- **활동형태** 모둠 활동
- **준비물** 워크시트 6-4(1인 1장), 사인펜 등의 필기구
- **학습주제** 윤리적 소비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1단계
윤리적 소비 행동
유형

| 진행방법 |

- 소비과정별로 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 행동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소비과정	윤리적 소비 행동	자발적 간소화
자원 배분	나눔, 기부	
구매	환경친화적 상품 구매, 공정무역 상품 구매, 공정여행, 로컬 구매, 불매 운동	
사용	에너지 및 물 절약, 자원 절약	
처분	분리수거, 재활용 및 재사용, 중고품 사용, 쓰레기 줄이기	

출처: 홍연금(2009)에서 내용 수정

- 소비과정 중 구매에 있어 할 수 있는 윤리적 구매행동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구매 유형	특징
불매 (Boycotts)	비윤리적 제품 및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구매 (Positive Buying)	바람직한 윤리적 상품을 구입하는 것
충분한 검증 (Fully Screened)	생산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통한 구매
관계적 구매 (Relationship Purchasing)	생산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통한 구매
반 소비주의 또는 지속가능한 소비주의 (Sustainable Consumerism)	지속 불가능한 상품의 비구매와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상품 구매

출처: Harrison R. 외 (2005)

2단계

노 임팩트 맨 되기

| 진행방법 |

- 학생들에게 '노 임팩트 맨'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노 임팩트 맨 프로젝트: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남기 1년 프로젝트



(다큐/ 도서)

역사 분야 저술가이지만 환경에는 문외한이었던 콜린 베번은 어느 날 환경위기에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는, 1년간 환경에 영향(임팩트)을 주지 않는 삶을 실험해보기로 결심한다. 아내와 어린 딸도 동참하며 자신의 평범한 뉴욕 생활을 이어간다는 조건이다. 일회용품과 교통수단을 거부하며 전기까지 끊어버린 주인공은 스스로 고민하고 시도하고 대안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삶의 방향을 잡아나간다. 마침내 환경단체와 함께 일도 하고 국회의원까지 찾아가 설득하는 단계까지 오른다. 환경문제로 시작된 이들의 프로젝트는 결국 행복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다다른다. 노 임팩트 맨 프로젝트의 1년 기록을 담은 이 책은 한 도시인 가족의 유쾌한 모험담이자 감동적인 성장기이다.

출처: 북하우스 출판사 서평

- '노 임팩트 맨' 다큐멘터리에 대한 예고편(1분 30초)을 시청합니다.
<https://youtu.be/ulyh5WIkThE>
- 인원은 한 모둠 당 5인으로 구성하고 20분 내외로 진행해 주세요.
- 내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비중이 높은 일',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해 봅니다. (총 4가지)
- 워크시트 6-4 '노 임팩트 맨 되기'의 빈 공간에 앞서 생각했던 4가지 일상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간략한 설명도 적어 봅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순서대로)
- 내 일상의 그림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게 워크시트를 전달합니다.
- 친구가 그려놓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를 떠오르는 대로 워크시트 하단에 적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많으면 각 그림마다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 마무리 후 다시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게 워크시트를 전달합니다.

- 한 바퀴 돌아 다시 자신의 그림을 돌려 받으면 활동 완료!
- 친구들이 제안한 윤리적 소비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 나는 친구들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 교사를 위한 팁

- 비현실적인 내용도 수용 가능합니다.
- 다양한 상상력의 접근을 하계끔 유도해주세요.
- 워크북 미활용시 재료구성 또한 윤리적 소비에 맞게 이면지 등으로 구성해주세요.
- 추후 개별 또는 학급단위 캠페인이나 활동약속미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이미지를 연결하여 하나의 큰 콜라주 형태의 캠페인 포스터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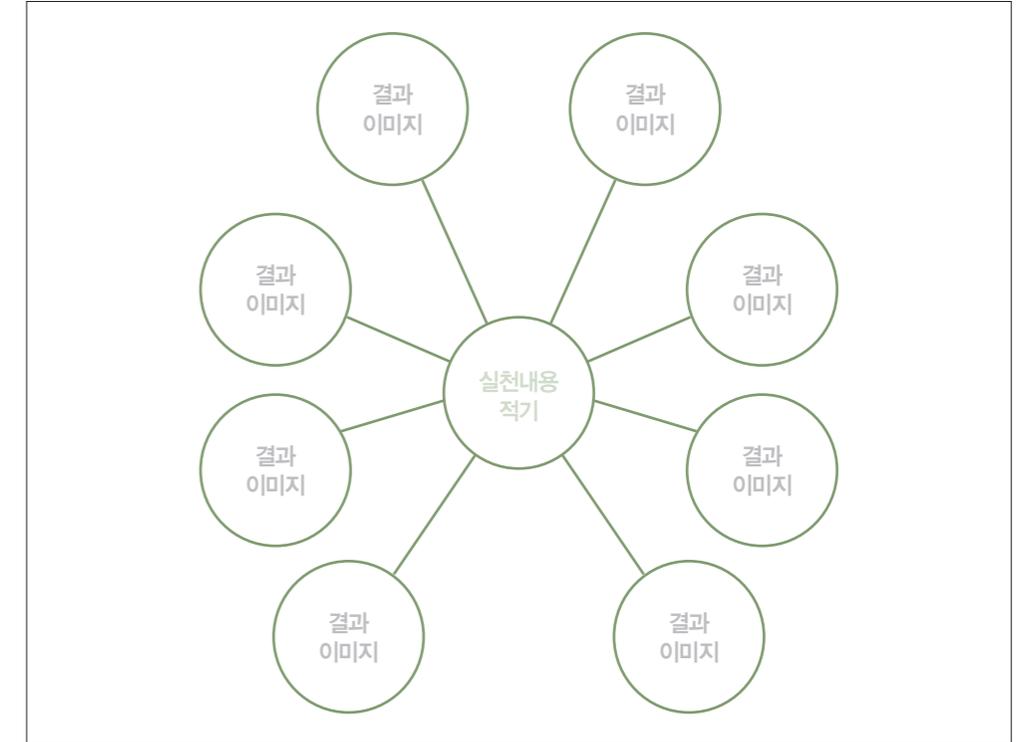
<p>나의 일상 1</p> <p>TALK</p> <p>휴대폰하기</p>	<p>나의 일상 2</p> <p>잠자기</p>	<p>나의 일상 3</p> <p>등교</p>	<p>나의 일상 4</p> <p>목욕</p>
<p>윤리적 소비 행동</p> <p>휴대폰 오래 사용하기</p>	<p>윤리적 소비 행동</p> <p>불을 다 끄고 자기</p>	<p>윤리적 소비 행동</p> <p>도도록 걸어다니기</p>	<p>윤리적 소비 행동</p> <p>물을 아껴쓰기</p>

3단계

거미다리 약속장 (윤리적 소비참여 약속장)

| 진행방법 |

- 거미의 몸통 부분에 실행 약속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 거미의 다리에는 언제/어디서/어떤 사항을 실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게 합니다.
- 다리 주변에는 실천 후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 넣으세요.
- 실천 후에 실제로 실천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 교사를 위한 팁

- 개인 단위부터 반 단위까지 실천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논의를 통해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해주세요. (예: 일주일 간 우리 모둠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다.)
- 비현실적이거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참여방식은 지양합니다.
- 해당 약속장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배치되어 반복적으로 독려될 수 있게 해주세요.
- 해당 약속이 선생님의 확인보다는 개별 친구들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활동 안에 연계될 수 있는 보상 포인트를 고려해주세요.
- 모둠별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반별 프로젝트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노 임팩트 맨 되기 활동을 포함해 별도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 임팩트 맨 실천활동 그림 그리기+문장 연결=캠페인 피켓이나 포스터로 활용)

참고

1. 재활용 (Recycle)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기준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분리수거' 시스템이 필요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합니다.

2. 재사용 (Reuse)

한 번 사용된 제품을 제품 그대로, 또는 부품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베품시장, 재사용매장 등의 방식으로 시민사회에서 재사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새활용 (Upcycle)

Upgrade와 Recycle을 합친 말입니다.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언어순화차원에서 업사이클을 새활용으로 명칭 변경

4. 보이콧 (Boycott)

1880년 높은 소작료와 강제퇴거에 저항하기 위한 아일랜드 토지운동에서 소작인들이 영국의 관리인 찰스 커닝햄 보이콧을 내쫓는 데 성공한 뒤 생겨난 말입니다. 보이콧은 1차와 2차 보이콧으로 구분되는데,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회원과 일반 시민에게 분쟁 관련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행위를 1차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2차 보이콧은 1차 보이콧 대상인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 3자를 대상으로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5. 지속가능한 소비

자원의 최적 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생산 효율성 확보와 함께 요구되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폭 넓게 의미합니다. 주로 윤리적 소비, 혹은 착한 소비로 영역을 좁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에 명확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참고: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KoFD, KOICA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paper01&wr_id=88&sf=wr_subject&stx=sdgs&sop=and)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은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통해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싱크탱크로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실시하며,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유네스코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 회원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교육 2030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담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선도 기관으로 앞장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 모여라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집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획사업팀 간사 박서연
피스모모 대표 문아영
세계시민교육 보니따 공동대표 공유희
아름다운가게 교육문화팀 팀장 김원섭, 간사 김성훈

감수 원주 신림초등학교 교장 최일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슈프로젝트팀 간사 장덕현

© APCEIU 2017

ISBN 979-11-87819-08-0

일러두기 본 서의 내용은 개별 저자의 의견으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펴낸 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 Tel. 02-774-3956, Fax. 02-774-3957

발행월 2017년 12월

디자인·제작 톤앤톤(tone&tone) Tel. 031-974-9322

